UR과 화학산업과 1994!

1993년 말 UR(우루과이 라운드)이 타결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물자 교역이 자유화되고, 관세도 세계 각국이 거의 비슷해 경쟁력이 강한 국가나 제품 생산기업들은 세계시장 지배를 노리고, 반대로 경쟁력이 낮은 국가나 기업들은 대책 세우기에 분주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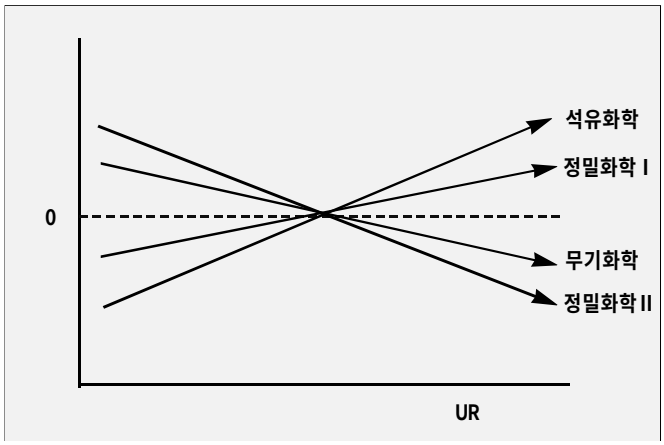
한국 경제 · 산업은 어떠한가? 쌀시장 개방으로 현정부가 홍역을 치르고 개각과 당직개편의 고단위 처방을 통해 현상을 돌파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경제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쌀」농업은 생산방식 · 기술 · 기계화 · 노동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 미국이나 타이 · 오스트레일리아 · 중국 등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으며, 이를 막기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고 있다.

기업농을 육성하자니 농업의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니고, 경지정리율이 50%를 밑도니 기계화도쉽지 않다. 다만,우리의 쌀맛이 미국쌀이나 중국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우리입맛에 잘 맞아-과연 수입쌀이 우리 농업을 말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되고는 있으나, 하지만 가격차가 5~8배라고 하니 입맛을 저버리고서라도 경제성을 따지고 나오면 할 말은 없다.

지금이라도 품종을 개량하고, 농지정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계화를 앞당기며, 농업의 기업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대량 생산 및 유통의 일원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쌀시장 개방을 거부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으나 현상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같다. 아니 개방을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업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국제화의 대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화학산업은 어떠한가? UR 타결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은 농업과는 정반대로 상당한 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목에 따라 유 · 불리가 다르고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 망정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이 극심한 상태이니 동남아 각국 및 일본이 합성수지 등의 관세율을 20%안팎에서 10%이하로 인하할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밀화학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부가 중간체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UR타결로 변화될 게 없고 완제품은 수출이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페인트 · 염료 · 안료 · 계면활성제 · 접착제 등은 「원료 · 중간체 수입」「완제품 수출」의 저수익 구조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원료 · 중간체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UR타결이 국산화기업에게는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다국적 기업들의 국산화 방해 및 덤핑공세가 물의를 빚고 있는 판에 수입문이 더욱 활짝 열려 있으니 국산화 방해 책동이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밀화학 중에서 의약 · 농약 · 세제 · 화장품 등 소비재 부문은 크게 문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약 · 농약은 원제를 거의 수입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분은 거의 COPY 제품으로 지적 소유권에 위배되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원료 · 중간체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돼 소분 · 유통으로 전락될 가

능성이 크며, 제약기업들은 아마도 드링크류 및 건강식품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장품도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없으며, 산업 특성상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기화학은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얼마전 소다회가 홍역을 치른바 있고, 지난해에는 정제인산이 고전한 바 있듯이 CA부문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유·불리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화학산업계의 과제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1994년은 국내 화학산업이 국제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각오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 화학산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각히 논의하고 대책을 숙의해야 할 때이다.

<화학저널 1994/1/1>